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글로벌 재활치료 선도한다 명지춘혜병원

세계 최고의 뇌졸중 재활 전문 병원을 지향하는 명지춘혜병원은 1984년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뇌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과 함께 춘혜의료재단(이사장 장혜실) 소속의 의료기관이다. 명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재활을 위한 마땅한 병원이나 시설을 찾지 못해 퇴원을 망설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치료와 재활이 하나의 사이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10년 명지춘혜병원이 개원하게 됐다.



명지춘혜병원 장혜실 이사장

Rotary Social Enterprise

로타리사회적공헌기업 06



명지 춘혜 병원



www.mjchoonhey.co.kr



사람, 시설, 그리고 신뢰

명지춘혜병원은 개원 이후 2014년 보건복지부 인증의 로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1월에는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사회와 의료계에서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고, 성과를 쌓아왔다. 명지춘혜병원은 196개의 병상과 심리상담실, 임상병리실 등이 있는 본관과 2015년 오픈한 1인실 전용 엘드림 병동(30병상), 그리고 외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외래 재활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10명의 의사와 51명의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전문 보건의료인과 행정 인력 등은 명지춘혜병원의 핵심이자, 자랑이다. 또한, 명지춘혜병원은 2012년 우리나라 최초로 상지 재활 로봇 치료기를 도입하고, 가상 현실 재활 치료기를 현장에 적용했다. 2014년 최첨단 보행 로봇 치료기 도입, 2015년 외래재활치료센터 신규 오픈 등 환자의 치료와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시설과 설비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이는 2017년 보건복지부의 재활 중별 시범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단과 병원, 인력과 시설의 조화와 구성원의 단결된 힘은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10월에서 2017년 9월 사이, 명지춘혜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 환자 수는 100명을 넘었으며, 연인원 7만8,697명, 평균 재원 환자 수 약 218명, 병상 가동률 95%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명지춘혜병원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시 살다, 함께 살다

명지춘혜병원은 입원 환자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와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 기독교 정신의 실현을 위한 해외 의료 봉사와 개발도상국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내 의료비 지원, 무료 간병 서비스와 주택 개조 연계 사업, 이미용 프로그램과 마사지 서비스 등은 환자의 재활과 그 이후까지 책임지기 위한 병원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 복지시설의 생필품과 쌀 지원, 마을 환경 미화 활동, 나눔 바자회,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각종 음악회 등의 문화 행사는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명지춘혜병원의 모습이다.

미안마 보육원 지원 사업과 중국 연변 해외 의료봉사, 월드비전 후원 사업 등을 통해 명지춘혜병원의 빛이 전 인류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미션을 명지춘혜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며, ‘전문성’, ‘팀워크’, ‘환우 중심’, ‘사회 공헌’이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의 아픈 몸 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환자의 불편한 생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까지 보듬는 명지춘혜병원은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삶을 위한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

명지춘혜병원 (대표 장혜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23
TEL: 3284-7777 | FAX: 3284-7888